

제1장 구연(具緣)



수행시 버려야 할 ‘사중사명식’

걸식행하면 네 종류 ‘삿된 생활’ 피할 수 있어

三者多寒國土 及忍力未成之者 如來亦許 三衣之外 畜百一等物 而要須說淨 知量知足 若過貪求積聚 則心亂妨道

여기에서는 하품인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며 추운기간이 길다. 그러므로 일년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열대지방과는 살아가는 방식과 여건이 똑같을 수가 없다. 때문에 여러께서 특별히 방편문을 열어 추운 지방에서는 세 벌의 옷 이외에 축적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단 백가지 물건에 한정해서 갖도록 하였다.

백가지의 물건은 각자 다르므로 각자의 물건을 가질 때마다 물건의 유래처가 청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된다. 이 청정함을 이야기하는 법은 근래에는 시행하는 자가 없으나 부처님 재세시엔 모든 제자들이 소유한 물건은 반드시 청정하다는 것을 설하게 했다. “이 물건은 삼보대중께 공양을 올리오니 자비의 마음으로 거두어 주소서.”

이와 같이 청하고 나서 발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것은 대중에게 하사를 받은 물건이니 나의 소유가 아니며 자기에게 소속된 것도 아니다. 이것을 설정(設淨)이라고 말한다. 만일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는데 그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물건의 한정됨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설사 지극히 보잘 것 없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나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양을 조절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지 지나치게 탐욕심으로 구해서 안 된다. 그렇지 않고 물건을 끝없이 쌓아만 두고 회사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미혹으로 혼란하여 도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次食法有四種 一者若上人大士 深山絕世 草果隨時 得資身者 以上으로 의복문제에는 모두 끝내고 지금부터는 음식문제에 대해 밝혀보기로 한다.

음식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상근인의 음식인데, 상근인은 일반세상사람과 함께 거처하기를 원하지 않고 석굴이나 물가 또는 숲속에 안주하기를 원한다. 그 때문에 깊은 산속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버리고 먹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이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주리고 5일 동안 먹지 않으면 병이 들고 7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상근인은 초목이나 과일로 음식을 대신한다. 예를 들면 세존이 전생에 고행을 할 때 스스로 음식을 만들지 않고 하루에 삼채 한 알과 보리 한 알로 음식을 대신하였다 했는데 이것이 상근인의 음식이다.

二者常行禪受乞食法 是乞食法 能破四種邪命 依正命自活 能生聖道故 邪命自活者 一下口食 二仰口食 三維口食 四方口食 邪命之相 如舍利弗爲青目女說

두 번째는 중근인의 음식이다. 중근인은 항상 두타행을 실천하여 걸식법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탁발걸식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자비의 마음으로 걸식을 행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하여 그들이 복을 짓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걸식법은 인도나 남방에서만 성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기후풍토상 걸식하는 기풍이 정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행하기가 어렵다.

걸식을 행하면 네 종류의 삿된 생활, 즉 사중사명식(四種邪命食)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사명식’은 잘못된 생활방식을 말한다.

첫째 하구식(下口食)은 입을 아래로 낮추어 먹는 음식을 말한다. 가령 자기의 전답에 경작을 하여 개인적인 생활을 도모한다면 이것을 두고 ‘하구사명식’ 즉 입을 오로지 땅으로만 낮추어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

둘째 앙구식(仰口食)은 하늘을 우러러 별을 관촬함으로써 천문을 살피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큰 바람이 일어날다든가 또는 큰비가 내리리다든가 하는 말을 예언하여 세상 사람들

을 크게 놀라게 함으로써 이를 방편으로 하여 생활하는 방식을 말한다.

셋째 유구식(維口食)은 갖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이 있을 만한 곳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음식과 재물을 도모한다. 때문에 유구식이라고 말한다.

넷째 방구식(方口食)은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길흉을 점치고 또는 의원노릇을 하거나 관상을 보면서 실제로 자기의 입을 봉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가비구는 불법을 크게 선양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삼아야 한다. 이를 두고 옛날 큰스님은 “법을 크게 선양하는 것이 불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중생 제도는 하는 일이 그 사업이다”라고 하였는데 진정한 불자라면 네 가지 ‘사명식’은 반드시 멀리 버려야만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활하는 모습은 이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여 이상에서 열거한 것처럼 네 종류도 있고 다섯 종류도 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예는 사리불존자께서 정무사에서 설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三者阿蘭若處 檀越送食 四者於僧中潔淨食 有此等食緣具足 名衣食具足 何以故 無此等緣 則心不安穩 於道有妨

이상 두 종류의 음식은 상근기·중근기의 음식이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청정한 아란야처, 즉 적정처 한곳에 일정하게 안주하면서 스스로 음식을 지어먹지 않고 신도가 보내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을 하품인의 음식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스님대중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이다. 이는 많은 스님들이 함께 모여 사는 총림가운데서 제법(濟法), 즉 법공양을 엄숙히 행하는 정결한 음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총림선방에서 행하는 대중발우공양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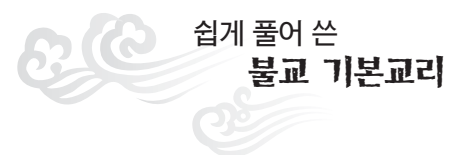
이 한 발우의 적은 음식일지라도 시방삼보 내지는 모든 금수와 광아에 떠도는 귀신들에

게까지 공양을 올린다. 그런 뒤에야 이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이미 시방삼보와 모든 귀신들까지 공양하고 남은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음식을 알아서 받아먹는다고 해도 아상(我相)이 없게 된다. 때문에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며 이것을 두고 최하 가운데 최하품의 음식이라고 한다.

총림에 안주하면서 손가락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어떤 일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먹는 이러한 등등의 음식까지도 모두 구족해야만 의복과 음식이 구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관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음식이 없다면 우선 마음이 안온하지 못하여 도업을 닦는데 방해가 된다. 때문에 “몸이 편안해야만 도가 일어난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만족하게 갖추는 일은 지관수행을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번뇌의 종류-의심(疑心)

의심(疑心)은 무언가 확신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란 진실한 이치에 대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일으키지 않고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해 항상 머뭇거리면서 미혹과 혼란이 계속되는 상태가 그 자체의 성질입니다. 이처럼 의심은 옳다고 믿는 마음과 이해가 확고하지 못하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악법은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선법은 새롭게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절곡(樞樞)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심의 특징적인 현실작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평소 의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은 설사 훌륭한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서 그에게 올바른 선법(善法)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해도 진실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괴로움의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의혹으로 혼란스러울 뿐, 끝내 올바른 지혜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의심 많은 사람은 진실을 미혹 올바른 지혜가 일어날 수 없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득해야 할 성스러운 도가 진실이라는 하지만, 진실을 얻는 데는 실천하기 힘든 숭한 고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진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근사적인 지극히 소소한 이익에는 쉽게 접근하고, 원대하고 희귀한 공덕은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모두가 평소에 익숙한, 천박한 견해에 안주하여 정작 진실은 선택하지 못하는 의심에서 비롯된 허물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단지 출세간의 무무성도(無漏聖道)만을 수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간의 유무선법(有漏善法)까지도 아예 따지 않기 때문에 목적인 이익만을 전일하게 추구할 뿐입니다. 가령 이런 사람이 공직에 재직해 있으면 사심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공익심이 털끝만 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리사욕만 챙기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복지부동하면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서 유추한다면 망국폐가의 병통이 의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심은 반드시 버려야만 할 커다란 미혹입니다.

■ 정리=張如舟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一心思想)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出道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 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성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장종주 054)632-2799
- 총 무 031)883-1506~7 011-338-1521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조	제 2 조	제 3 조
개인 사람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장 인 증 서 종 장 인 증 서 종 장 인 증 서	사 찰 인 증 서 사 찰 인 증 서 사 찰 인 증 서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속 향기와 목조 향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8년 1월 19일 - 1월 25일(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향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작 날 - 1월 19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25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관한 복장, 방한술소,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풍기 정품, 홍삼 액기스 판매

100ml x 60포(한달분) 회원가입(6개월, 1년) 우대할인

전 화 054)634-3429
휴대폰 011-9373-3778
E-Mail: pay3579@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 (예금주: 박영애)

누구나 판매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원가로 공급해드리고 생활고 보장

백만원으로 대리점운영 전국선착순

당뇨병, 각종 암환자분께는 특혜드림

2008학년도 신입생(대안·위탁)모집

고등과정 (학력인정)

- 3년제 : 중학교 졸업자
- 2년제 : 성인 단기 졸업과정 (불교음악, 불교미술 전공)

· 학령기를 놓친지 20세 이상 주부 및 기타
· 중도 포기 학생 (전·편입) 가능

중등과정

- 청소년, 일반 : 2년 단기과정

▶ 기숙사 생활 가능 ◀

모집기간 : 2007. 12월 ~ 2008. 1월 한함
모집인원 : 00명
입학원서 : 홈페이지 '입학자료실'에 탑재

문의 · 상담 : 055)583-6300 010-7770-9290 (행정실)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번지 (미륵사 내)

홈페이지 www.yeun.sc.kr

학력인정 연꽃자유고등학교장